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추가 발견

전주시, 2차 유해발굴 조사결과 최종보고회 가져... 44개체 유해·84개 유품 21일 세종시 추모의 집 안치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유해와 유품이 추가로 발견됐다. 황방산과 소리개재에서 발견된 다량의 유해와 유품은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전주시의회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성흥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이인철 6.25민간인희생자조사연구회장,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2차 유해발굴 조사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해 7월부터 추진해온 황방산과 소리개재 등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지난 2019년에 수습된 34개체의 유해보다 10개체가 늘어난 총 44개체의 유해가 발견됐다. 유해의 사망 당시 연령은 대부분 25~35세 청년으로 확인됐으며, 성별 판별이 가능한 7개체 전부가 남성인



전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전주시의회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성흥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이인철 6.25민간인희생자조사연구회장,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2차 유해발굴 조사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것으로 조사됐다.

유품으로는 희생자가 착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청동단추와 허리벨트, 철제 편 등이 발견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희생자 주변에서

확인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은 그때 당시 군인이나 경찰이 사용한 무기 체계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편 등이 발견됐다. 칼빈소총과 M1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희생자 주변에서

시의 잔인했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최종보고회에서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감식 결과 유해의 출토 양상은 이전 조사와 유사하며, 수습된 유해 부위는 대퇴골, 두개골, 상완골 순으로 확인됐으나 전반적으로 유실된 부위가 많고 잔존 부위의 보존상태도 열악해 절반 이상의 유해가 부위 판별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1일 발굴된 유해 44개체와 유품 84개를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1차 유해발굴에서 나온 두개골과 치아, 다리뼈 일부 등 유해 237건(유해 34개체)과 M1 소총과 권총의 탄피, 벨트 등 유품 129건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쟁이 남긴 상흔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면서 “이번 유해 발굴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 1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전주시장에서 전주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 현장 산업재해 예방 협력

전주시-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고용노동부가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지난 14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산업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자율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는 추락·끼임 예방조치 등 기술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업현장 내 잠재위험요인을 제거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토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 업무를 수행하

는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 및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특히 시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서 접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체결 유무를 확인 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산재 사망사고예방 실무협의체 운영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추락이나 끼임 같은 후진적인 산재가 여전히 노동 현장에 도사리고 있어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면서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문제 요소를 사전에 잘 점검해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콜로키움’ 온라인 개최

역대 수상자 6명 참여 무형유산 보호 활동 사례 공유·위상 높일 방안 모색

전주세계무형문화유산대상이 무형 문화유산의 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수상자들의 의견이 나왔다. 전주시와 (사)무형문화연구원,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는 지난 13일 밤 역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 6명과 합한회 무형유산 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콜로키움’을 온라인 회의로 개최했다. 콜로키움은 발표자가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 방식이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제1·2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세계무형유산대상의 위상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9년 수상자인 ▲아미드 스펀티(국립고고학유산과학연구소, 모로코) ▲아나나 바타차리앗(컨택트 베이스, 인도) ▲데일 잘비스(뉴펀들

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캐나다)와 2020년 수상자인 ▲히우 덕 부(몽족문화공간박물관, 베트남) ▲키리세(아사마, 부르키나파소) ▲몬세렛 파블레 아귀레베레(엔지오 임팩토, 멕시코) 등이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참여해 수상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메드 스펀티 씨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 소식이 현지 모로코 신문과 라디오, SNS 등을 통해 전해졌다”면서 “모로코의 무형문화유산이 자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 활동에 동기부여가 됐다”고 전했다.

데일 잘비스 씨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에서 받은 상금으로 무형문화유산 인벤토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면서 “보유자와 전승자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전통공예가들과 보존을

위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몬세레 아귀레베레 씨도 “수상 이후 정부 차원에서 단체 활동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힘쓰는 NGO로서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수상자들의 발표 후에는 한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인 함한희 원장, 박순철(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윤동환·정성미·오세미나(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등과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의 품격을 제고할 방안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세계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인 노리코 아이카와(일본), 로리에 뒤르정(캐나다), 아미레 스엘 갈라(인도), 율린 네이링크(벨기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 건지도서관, 유튜브 활용 영어 학습법 부모교육 특강

전주시립 건지도서관은 지난 14일 자녀의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활용 영어 학습법’ 특강 교실을 열었다.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날 부모교육 특강에는 ‘현서제 유튜브 영어 학습법’의 저자인 배성기 작가가 초·중·고 사교육 없이 미디어를 통한 영어를 교육한 비법을 전수했다.

특히 ▲영어가 쓰이는 영상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잡지리 독서로 책 읽는 습관을 기우는 방법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 부모들과 소통하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 직매장, ‘제로웨이스트 실천의 날’ 지정·운영

전주푸드 직매장이 포장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매장으로 거듭난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는 전주푸드 직매장 송천점에서는 매일 17일, 종합경기장점에서는 매일 18일을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실천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제로웨이스트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아예 포장을 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전주푸드 직매장은 7가지 잡곡류와

양파, 감자, 당근 등을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담아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의 제로웨이스트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의 날, 잠바구니를 이용해 포장 없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포장용기와 보냉팩을 직매장에 반납하면 농산물 사은품이 증정되는 행사가 진행된다.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구매하거나 생활에서 실천한 소비자가 SNS에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하고 #전주푸드 #전주푸드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프리 #제로웨이스트실천 등을 해시태그 하면 매달 6명을 선정해 전주푸드 상품권이 지급된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